

NET WORK



NET WORK 협회·회원사

(사)한국포장협회 제3기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식 개최
 (사)한국포장협회 협회 사무국 이전
 한국포장기술연구소 사무실 이전
 LogisALL 아산물류센터 오픈

NET WORK 정책기관

환경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발표
 농림부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식약청 PVC 의료기기, DEHP 표기 의무화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남지사 재활용홍보교육관 성황

NET WORK 유관단체

(사)대한인쇄문화협회 인쇄문화대상 수상자 확정
 한국포장기계협회 ProPak China 2005 한국관 운영
 한국중량물협회 수원으로 사무실 이전
 한국중량물협회 임시총회 및 창립 2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포장용기재활용단체협의회 홍보캠페인 개최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 윤석만 회장 은탑산업훈장 수상

NET WORK 업계동정

(주)로젠솔루션 출하계획수립시스템 개발 완료
 롯데제과(주) 설레임 월매출 1백억 매출
 한국제지(주) 동탄물류센터 자동화 창고 준공식 개최
 삼광유리 울초부터 진로에 소주병 납품
 식품업계 미투제품 급증

(사)한국포장협회
제3기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식 개최
 1백9명 수료, 성적우수자 시상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선창)는 지난 달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제3기 포장기술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 수료식을 개최했다.

(사)한국포장협회가 4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한 제3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는 제조사 1명을 포함 총 1백21명이 수강을 신청했으며, 이 중 1백9명이 포장기술관리사증을 취득했다.

(사)한국포장협회 공재홍 전무이사는 “협회는 정부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중 인력양성(포장분야)을 목적으로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포장전문가의 역할을 부각시켜 포장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주)효성 박동기 씨가 1백점 만점에 92.4점을 획득, 최고성적우수자로 수상했으며, (주)필맥스 최종인 씨가 91.1점으로 2등을, (주)삼성인크 정성식 씨가 90점으로 3등으로 수료, 수상했다. 그동안 (사)한국포장협회는 제1기 1백38명, 제2기 1백65명의 포장기술관리사를 배출했으며 올해 하반기 제4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 (사)한국포장협회가 제3기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식을 개최, 1백9명이 수료했다

(사)한국포장협회
협회 사무국 이전
포장시험실 설치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선창)가 사무국을 이전, 10월 1일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특히 포장협회는 새로운 사무국에 오랜 숙원이었던 포장시험실을 설치, 향후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 시험을 통해 회원사 및 포장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등 효율적으로 업계 발전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사무국을 이전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원사와 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포장업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 : (우)153-8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50-1 IT캐슬 1동 317, 318호
전화 : 02-2026-8655~8659
팩스 : 02-2026-8660

한국포장기술연구소
사무실 이전
발전 도모 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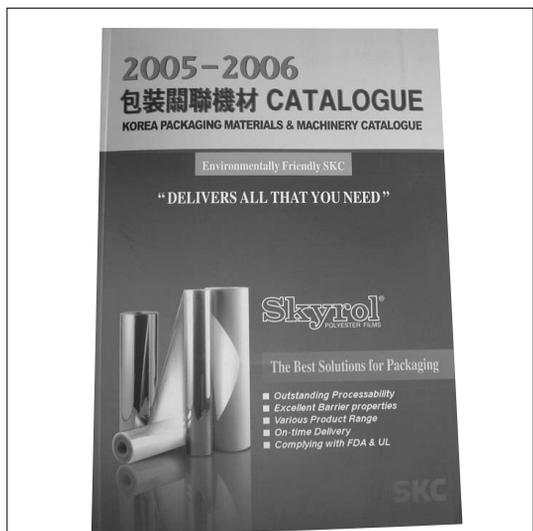
한국포장기술연구소(소장 김영호)는 이번달 10일 기간 여의도에 소재했던 연구소를 금천구 가산

동으로 이전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회장 김영호) 사무국도 동 장소로 이전하게 된다. 변경 주소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주소 : (우)153-8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50-1 IT캐슬 2동 1313호
한국포장기술연구소 전화 : 02-2026-8166
팩스 : 02-2026-8169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전화 : 02-2026-8230
팩스 : 02-2026-8231

한국포장기술연구소
2005/2006 포장 기자재 카탈로그
수요 공급 가교역할

한국포장기술연구소(소장 김영호)에서는 '91, '93, '94, '95, '97, 2001-2002에 이어 '2005-



▲ 2005/2006 포장 기자재 카탈로그

2006 포장 기재 카탈로그'를 발간했다.

2005-2006 포장 기재 카탈로그는 구매선이 필요한 자재용기나 설비를 검토할 때 필요한 정보를 완벽히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나 공급자의 성실한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카탈로그는 일본, 동남아, 중국 및 전세계 한국무역관에 배포되고 각종 포장관련 전시회에서도 판매되며 이들 지역에 관심이 있는 회사의 경우 자료 작성시 한문이나 영문을 많이 사용해 사진과 함께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2005-2006 포장 기재 카탈로그는 종이 · 판지 및 관련 가공품, 금속 · 유리 포장재료 및 용기, 연포장가공,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필름 씨이트, 플라스틱 원료 및 첨가제, 기타 포장재료 · 잉크 · 도료 · 점착제 · 코팅제 · Hot Melt 및 이들 제품의 원부재료, 시험검사기기 및 공인시험 전문기관, 포장기계, 가공기계, 인쇄관련 기자재, 환경관련 설비, 중량물포장 및 목상자, 물류관련 장비 및 물류 전문업체, 컨설팅 및 포장학과 관련대학 · 대학교로 분류돼 있다.

흑백본문 목차는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업종별, 가나다, 상호별, 알파벳 상호별로 분류했으며 카탈로그 뒷면에 색인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흑백본문과 원색광고 참가 업체 명단을 가나다 상호별, 알파벳 상호로 수록했다. 한국포장기술연구소는 1991년부터 다른 측면에서는 국내 포장산업의 족보 제작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포장 기재 카탈로그를 발행해 오고 있다.

출판사 : 한국포장기술연구소
전화 : 02-783-9933
팩스 : 02-783-9392
가격 : 30.000원

LogisALL 아산물류센터 오픈 신물류 개척 예고

한국파렛트풀 및 한국컨테이너풀을 운영하고 있는 LogisALL(대표 서병륜)은 지난 달 10일 아산물류센터 준공과 관련, 오픈 기념식을 가졌다.

전국적으로 수도권 12개, 충청권 7개, 호남권 6개, 영남권 10개 등 총 35개로 총면적 5,683평, 옥내면적 1만2천4백49평의 물류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LogisALL은 자재 통합 공동물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2만평에 달하는 최대 물류기지인 아산물류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신물류 개척을 예고했다.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에 위치한 아산물류센터는 현재 공장동은 2개동으로 A동 1천1백35평, B동 1천3백62평, 위험물 창고 32평, 앞으로 물류장비 정비센터 및 파렛트 기술연구소가 들어서는 1개동은 약 1백50평으로 총 6개동 3천4백17평의 LogisALL 최대의 물류기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장동 B동은 자재통합 공동물류사업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건물로, 바닥은 에폭시로 포장됐으며 깨끗한 크린룸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A동은 조달물류기지로서 천안 ITD, 탕정 HDD센터의 물류기기 선별, 보관, 세정 등 정맥순환물류(Reverse Logistics) 시스템의 허브 물류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협회·회원사

센터내 사업추진실은 TMS(운송관리시스템), WMS(창고관리시스템) 정보센터, 비상상황실, 관련사간 업무회의실 등의 기능을 하게 되는 등 통합물류 운송차량의 터미널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날 오픈기념식에는 서병륜 대표이사과 LogisALL 주주사 대표, 물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 아산물류센터 개장을 축하했다.

서병륜 사장은 “물류에 있어서의 개척자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 그동안 걸어온 20년의 시간을 다시 한번 출발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새로운 물류시스템을 끊임없이 창안하는 新物流 개척자로서의 LogisALL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일제지(주)
신호제지 인수 합병 추진 나서
 서울 사무소 옮기는 등 철저준비

종이 및 판지 전문 제조업체 국일제지(주)(대표이사 최우식)가 작년 말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신호제지(주)(대표 김종곤)에 대한 인수 합병(M&A)에 나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달 4일 제지업계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신호제지의 최대주주인 아람파이낸셜 서비스가 30억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을 위해 보유 중 이던 지분의 일부인 56만6천주를 국일제지에 넘



▲ LogisALL 아산물류센터 오픈

졌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일에는 아람파이낸셜서비스의 특수관계사인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신한제3호구조조정조합 등 3개사가 보유 중인 신호제지 주식 4백41만8천9백42주를 국일제지에 2백53억원에 장외매각했다.

이에 따라 아람파이낸셜서비스와 구조조정조합 등 특수관계사의 지분율은 당초 55.48%에서 34.54%로 감소했으며 국일제지는 19.81%의 지분을 취득, 2대 주주로 올라섰다.

특수관계사의 지분을 제외할 경우 아람파이낸셜서비스의 단독 지분이 14.51%에 그쳐 국일제지가 사실상 신호제지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아람파이낸셜서비스 관계자는 “국일제지는 지난해 신호제지 기업인수합병(M&A) 협상을 진행할 때 50억원을 빌려주는 등 기업인수에 도움을 준 회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적개선을 위해선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하는 책임경영체제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구조조정조합은 신호제지 협력업체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5년 만기까지 지분을 유지할 방침이지만 나머지 지분은 국일제지에 넘길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일제지는 지난 5월 서울 역삼동에 있던 사무실을 신호제지가 입주해 있는 양재동 동원산업빌딩 옆 건물인 태석빌딩으로 옮겨 신호제지 인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일제지는 78년 설립된 기업으로 담배 필터에 들어가는 다공지와 담배 은박원지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4백77억원에 순이익 35억원을 올린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아트지 등 고급 인쇄용지를 생산하는 신호제지는 98년 외환위기로 부도를 낸 뒤 워크아웃을 진행하다 지난해 구조조정전문(CRC)기업인 아람파이낸셜서비스가 인수하며 워크아웃에서 졸업했으며, 지난해(6월말 결산기준) 5천7백62억원 매출에 1백1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자산 규모가 7천3백29억원으로 국일제지(4백59억원)에 비해 16배 가까이 크다.

SKC(주)
박장석 사장 ‘도전 100’ 운동 실시
 고유가 극복, 기업경쟁력 확보

SKC(주)(대표이사 박장석) 박장석 사장이 최근 고유가로 에너지환경이 급변한 가운데 ‘도전 100’ 운동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운동은 전사적으로 에너지 절감운동에 동참, 유가가 배럴당 1백달러가 되더라도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박 사장은 이를 위해 기존의 4R(Reduce, Recycle, Remove, Replace)운동에 이어 공장에 고효율모터 설치, 용수절감 등 10대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를 마련, 집중 추진하고 있다.

전사원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감 아이디어 공모 및 에너지 지킴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1%의 에너지도 아끼자는 ‘Save 1’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사장은 “‘도전 100운동’을 통해 연간 3% 이상(12억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발표
 1천4백34개소 적발

환경부(장관 이재용)는 올해 2/4분기 중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3만1천1백90개소를 단속하여 환경법령 위반업소 1천4백34개소를 적발했다.

단속업소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4.6%로 나타났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1백99개소), 사용중지(2백18개소), 조업정지(1백69개소), 개선명령(3백83개소), 경고 등(4백41개소) 행정처분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6백19개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행정처분 병과 5백95개소)조치했다.

3종 이상 배출업소에 대한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태림포장공업(주), 에스비씨(주), 부산산업사, 내촌숫가마 등 13개 업소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했다.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주)인주종합철강, 한샘(주)제4공장, (주)새서울경금속 등 14개 업소에 대하여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 했으며 대기 또는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 쌍용양회공업(주)광양공장 등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해 보면 전체 단속대상 배출업소 수 대비 2/4분기의 전국평균 단속율은 41.7%이며, 단속율이 높은 시·도는 인천(54.4%), 대전(47.3%) 충남(46.6%) 등의 순이며, 울산(23.3%)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위반율은 전국 평균 4.6%이며, 부산(6.5%), 광주(6.3%), 경기(6.0%)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대전(1.6%), 울산(2.6%)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전체 고발건수는 6백19건이며, 이중 경기도가 3백11건으로 전체대비 50.2%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2회 이상 위반한 업소를 분석해 보면 2005년 1월부터 최근 6개월 동안 환경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정일섬유, (주)새서울경금속, (주)호반크리너, 에코서비스코리아(주), 영풍제지(주), 성림유화(주) 등 총 21개소로 나타났다.

2004년 같은 기간과의 단속실적을 비교해 보면 전체 단속업소수는 약 6.5% 감소(3만3천3백52개소 → 3만1천1백90개소)하였으며, 위반업소수는 약 11.1% 감소(1천6백13개소 → 1천4백34개소)하였다. 다만, 3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단속업소수와 위반업소수가 각각 1천1백09개소(27.4%), 41개소(29.9%) 증가됐다.

이는 '04년 9월부터 환경관리실태가 양호한 사업장(청색등급)에 대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으로 발생한 단

속여력을 배출규모가 큰 사업장(3종 이상) 위주로 단속활동을 실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농림부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자율 등록제 시행 후 단계적으로 의무화**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이력추적시스템이 내년부터 쌀 등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농림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유통 중인 농산물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산·유통 과정을 역추적,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은 생산자와 생산방법, 포장업자, 유통과정 등의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와 정부 당국이 인터넷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쌀과 과수, 채소 등의 농산물에 대해 올해 중으로 표준화된 기록·관리기준을 마련해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기준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또 이력추적관리를 적용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이력 로고 부착을 허용,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력시스템 시행 초기에는 등록제로 운용,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이력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유도한 뒤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유럽의 경우 올해초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미국과 일본 등도 일부 품목에 이력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세계적으로 이력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부는 고가이면서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약재와 유전자 변형 식물(GMO) 등에 대해 이력시스템 도입을 우선적으로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모든 농산물로 의무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축산물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쇠고기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추적시스템을 도입한 뒤 다른 축산물로 확대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력추적시스템이 정착되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수와 원인규명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지능형 로봇·RFID 공동 연구
조기 상용화 및 원천기술 확보 용이기대**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가 국방부와 손잡고 지능형 로봇과 고주파인식기술(RFID) 연구개발(R&D)에 나선다.

지능형 로봇과 RFID는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IT839 품목 가운데 핵심 분야로, 국방 선진화와 상업화를 동시에 겨냥한 이번 공동 R&D

를 통해 두 가지 미래 기술의 조기 상용화 및 원천기술 확보가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지능형 로봇과 RFID 기술은 차세대 IT 유망품목 중에서도 국방력 강화와 산업 유발효과를 함께 노릴 수 있는 핵심 분야”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국방부와 두 가지 기술의 공동 R&D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와 국방부는 특히 상업화는 물론이고 국방 현장의 ‘정찰탐지’ 용도로 실제 투입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로봇과 RFID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간 IT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정부 예산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국방 예산을 매칭 펀드 형식으로 함께 조성해 이르면 내년부터 공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로봇과 RFID는 현재 선진국에서도 핵심 원천기술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R&D 자금을 투입하는 글로벌 경쟁 분야”라면서 “이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은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50년대 이후 세계 IT 시장을 선도해 온 미국의 경우 민간기업과 연구소가 참여하는 국방성 R&D 프로젝트를 통해 집적회로(IC)·마이크로프로세서·PC·인터넷 등의 상업화를 이끌어내고 IT 혁명을 주도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방식과 규모를 갖춘 국가 R&D 프로젝트가 처음 등장하는 사례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는 미래 원천기술 확보경쟁에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
PVC 의료기기, DEHP 표기 의무화
이달부터 적용

환경호르몬 논란을 불러온 PVC 의료기기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첨가사실을 주의사항 및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병원협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보내고 PVC백 사용시 주의사항 및 용기 등의 표시기재 사항 추가 등 안전성 정보를 기재도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서한에서 “혈액저장용기, 수액·혈액세트, 혈관회로, 카테터 등 가소제로 DEHP가 첨가된 PVC 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와 관련, 환자 및 의사 등의 취급자들이 DEHP가 첨가된 PVC를 사용한 의료기기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이번 달 1일부터 DEHP가 첨가된 PVC 사용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사용시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하고 용기 등에도 DEHP가 사용되었음을 표시해 판매하도록 제조·수입업소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식약청은 아울러 “이들 제품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있었거나 추가로 인지한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제조·수입업소로는 백톤디킨슨코리아, 녹십자, 메디루선, 녹십자의료공업, 박스터, 한국폴, 에크미메디칼, 베이스무역, 미르사이텍, 한국캠블로솔루션, 신왕 등 11개 업체가 있다. 그 동

안 DEHP가 첨가된 PVC 의료기기와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는 환경호르몬 노출 등 부작용 논란을 불러왔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남지사 재활용홍보교육관 성향
 방문객 지난해보다 5백93명 늘어

한국환경자원공사 대전충남지사(지사장 윤석문)가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홍보교육관이 환경보전과 재활용 교육의 장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올 상반기 재활용 홍보교육관을 찾은 방문객 수는 3천9백93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

려 5백93명이 늘어나는 등 일반인은 물론 학생들에게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재활용 홍보교육관은 자원순환 전시코너(재활용 과정 및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전시, 1회용품과 과대포장의 비교전시), 자원순환 체험코너(분리배출 체험, 폐품을 이용한 공예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품의 재활용 과정과 폐품을 이용한 공예품 만들기는 체험을 통해 재활용의 중요성과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자원공사 대전충남지사는 인터넷홈페이지(cafе.daum.net/envico77)를 개설해 인터넷을 통한 관람 신청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남지사 재활용홍보교육관

이번달 14일 시상식 개최

2005년도 인쇄문화대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최근 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2005년도 인쇄문화대상 수상자로 경영부문에 이광옥 (주)홍보컴 대표이사, 기술부문에 고평민 삼화실업(주) 대표이사, 특별부문에 이창석 목활자무형문화재, 진흥부문에 김충진 한국이앤엑스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상식은 9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정부포상식과 함께 열린다.

경영부문 인쇄문화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이광옥 홍보컴 대표이사는 1949년 생으로 1967년 인쇄업계에 입문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업인쇄 및 특수인쇄물 개발에 헌신해 왔다. 특히 선진국에 뒤져 있던 특수인쇄분야의 기술 개발에 몰두, 지금은 해외로 수출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수인쇄분야의 기술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2003년 열린 아시아인쇄물컨테스트에서 라벨부문 금상, 포스터부문 은상, 캘린더부문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또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서울인쇄정보조합의 이사로 참여, 단체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2002년에 열린 청주인쇄출판박람회를 후원하는 등 인쇄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기술부문 인쇄문화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고평민 삼화실업(주) 대표이사는 1938년 생으로 조선대학교를 나와 곧바로 제관인쇄와 인연을 맺은 이래 지금까지 외길 제관인쇄인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고 사장은 그동안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 제관인쇄의 기술개발과 저서발간, 후진양성, 인쇄고무 롤러 개발 등에 헌신, 제관인쇄분야의 산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보호 활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는 고 사장은 북인천이업종교류회장, 한국기록보존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2004년에는 아산시기업인 대회에서 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별부문 인쇄문화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이창석 씨는 강원도가 지정한 목활자 무형문화재로 각자장인이다.

1954년 생인 이창석 씨는 1978년부터 각자를 시작,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활자와 함께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한인쇄문화협회 인쇄역사박물관, 서울인쇄정보조합 홍보관, 청주고인쇄박물관 등에 자신의 작품을 제공했다.

강원도 고성에서 강원서각을 운영하며 활자복원에 헌신해 오고 있는 이창석 씨는 월인석보, 훈민정음, 집왕성교서, 동국정운 등 수많은 목판과 목활자를 복원했다.

부친 이동각 옹으로부터 목각 기술을 전수받은 이창석 씨는 철저한 고증과 자료 수집을 통해 우리나라 고인쇄문화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

진흥부문 인쇄문화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김충진 한국이엔엑스 대표이사는 1953년 생으로 고려대학교를 나와 서울경제신문에 입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시업의 외길을 걸오 오고 있다.

특히 1978년 제1회 KIPES(국제인쇄산업전시회) 주최를 시작으로 매 2년마다 한번씩 인쇄전시회를 개최해 우리나라 인쇄문화 발전과 국산인쇄기기 개발 및 수출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또 2001년부터는 프린코(국제특수인쇄전시회)를 역시 매 2년마다 한번씩 개최하여 특수인쇄분야의 기술증진과 관련기기 개발에 공헌했다.

김 사장은 이같은 공로로 2001년 무역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1998년 한국일보전 시국에서 법인 전환된 한국이엔엑스 대표이사에 취임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김 사장은 한국전시업협 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편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올해부터 인쇄문화상을 인쇄문화대상으로 격상하고 진흥부문을 신설했다.

한국포장기계협회

ProPak China 2005 한국관 운영

10개사 한국관 참가, 성과 거둬

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최상식)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중국 상해국제박람센터(SNIEC)에서 금년 11회째를 맞아 개막된 ProPak China 2005 전시회에 KOTRA(대표이사 홍기화)의 공동주관 사업(P-2)으로 한국관을 구성,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의 전체 규모는 전시면적 2만2천㎡에 20개국 4백56개 회사(외국회사 2백11사, 중국회사 2백45사)가 참가했다.

이번 한국관에는 (주)한국크리에타를 비롯, (주)선진에스엠, 을성정공, (주)디에스아이, (주)커포텍, (주)나우시스템, (주)스카이소프트젤, (주)양현기공, KOTRA, 한국포장기계협회 등 10개 회사가 참가, 총 1백50㎡의 부스를 운영했으며 총 상담 2백62건에 6백93만불 상당의 상담실적을 기록하고 계약추진 1백42만불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 전시회는 한국포장기계협회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국가관을 형성, 참가해 온 전시회로 2001년도 전시회부터 매년 참가했으며 일본을 비롯한 외국사가 대규모로 참가하는 정평 있는 중국 내의 국제 포장전시회로 알려져 있다.

ProPak China 2005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29사), 독일(30사), 이탈리아(26사), 미국(31사) 스페인(5사), 대만(29사), 영국(12사) 등이 국가관으로 참가했으며 이 중 1천㎡에 이르는 대규모



◀한국포장기계협회 ProPak China 2005 한국관 운영

(29사)의 국가관을 형성한 일본관은 단연 돋보였다.

한편 한국포장기계협회는 내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SNIEC에서 개최될 ProPak China에 KOTRA와 공동 주관(P-2사업)으로 한국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내년 도에는 금년보다 늘어난 2백 m²의 면적을 주최자 측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국중량물포장협회

수원으로 사무실 이전

소규모 교육장 마련 통해 인력양성 노력

한국중량물포장협회(회장 임경빈)는 지난 달 11일 경기도 수원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번 사무실 이전은 한국중량물포장협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이전한 사무실에는 회의와 소규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 양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96-6 남경빌딩 3층 전화 : (031)217-9453

한국중량물포장협회

임시총회 및 창립2주년 기념식 가져

임경빈 회장 연임

한국중량물포장협회(회장 임경빈)는 지난 달 19일 수원 호텔 캐슬에서 임시총회 및 창립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회는 1기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서 2기 임원을 새로 선임했다.



▲ 한국중량물포장협회 임시총회 및 창립2주년 기념식

서울수출포장의 임경빈 사장이 회장에 연임됐으며, 신흥목재산업개발의 구자만 사장이 신임 부회장에, 동방콘포의 박철 사장이 신임 고문에, 대구수출포장에 강완석 사장이 신임감사에 선임됐다. 또한 고문 2명 및 이사 4명은 연임됐으며, 새로운 이사 6명을 선임, 2기 임원진을 구성했다.

한국중량물포장협회는 올 하반기 '공업포장실무수첩'의 발간, 표준포장단가 시산 자료 작성 및 설명회, 2005년 정기 포장기술 교육(9월 말~10월 초)과 10월 중 한일 포장업계 정기 교류회 등 활발한 사업 진행 계획을 전했다. 한편 새로 이전한 수원회사의 협회 사무실에 소규모 교육장을 마련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수시로 회원사의 중간 관리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포장용기재활용단체협의회

홍보캠페인 개최

‘분리배출과 환경사랑’

한국포장용기재활용단체협의회는 지난 달 4일부터 5일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분리배출과 환경사랑 이야기’ 홍보캠페인을 개최했다.



▲ 한국포장용기재활용단체협의회 홍보캠페인 개최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PET병, 종이팩, 플라스틱용기, 스티로폴, 금속캔, 유리병 등의 분리배출 생활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홍보하는 자리로 환경사랑을 실천하고자 각 국내 포장용기재활용단체 직원들이 참여하여 마련됐다.

한국포장용기재활용단체협의회는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 한국종이팩재활용협회, 한국PET병재활용

협회, 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 등 국내 6개 포장용기재활용협회가 공동 연합회, 공동캠페인 등 각 단체의 공통관심사를 논의하고 집행하는 단체다.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

윤석만 회장, 은탑산업훈장 수상

철강 산업 이미지 제고 크게 기여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 윤석만 회장이 지난 달 9일 제6회 '철의 날' 기념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포스코 부사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윤석만 회장은 '74년 포스코에 입사한 이래 현재 마케팅·홍보 업무 등을 맡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철강 소재 조달로 국내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철강 수요산업이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또 중소기업 소재 지원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e-Sales 판매량을 2004년 86만톤에서 2005년 1백20만톤으로 늘리는 등 중소기업 철강재 판매량을 2004년 6백27만톤에서 2005년 7백63만톤으로 1백36만톤 확대하여 유통구조를 개선시켰으며, 세계 최초로 후판 전용선을 건조, 운영하는 등 철강 물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폭넓은 대외 활동을 통해 철강 산업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4년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협회 창립 당시 21%에 불과하던 금속캔 재활용률을 74%까지 개선하고, 지난 5월 금속캔 재활용 홍보전시관인 '캐니빌리지'를 건립, 운영함으로써 환경개선과 자원절약에 앞장서고 있다.

(주)로젠솔루션
출하계획수립시스템 개발 완료
 제품 · 파렛트 · 컨테이너 적재 자동 생성

공급망(Supply Chain) 상의 포장 및 적재 최적화 정보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주)로젠솔루션(대표이사 이동명)이 지난 6월 29일 대림산업(주) 전주공장에 수출 제품에 대한 적재 계획 시스템을 구축, 공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주) 전주공장은 석유화학사업부의 국내 생산공장 중의 하나로서, 해외 바이어로부터 받은 주문에 대하여 제품(롤 필름)을 박스 포장해 팔레타이징 한 후, 컨테이너로 출하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제품 규격에 적합한 파렛트 선정과 컨테이너의 적재 계획 수립에 평균 약 5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함으로써 물류 부문의 과도한 시간적, 물리적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젠솔루션은 제품의 규격을 입력하면 최적의 파렛트 규격 조합과 입수 배열 및 컨테이너의 적재 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3차원 시뮬레이션 기반의 적재 계획 시스템을 공급하게 됐다.

이 시스템은 (주)로젠솔루션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패키지형 적재최적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VMS Solver2005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장의 업무 분석 결과를 반영한 적재 Logic를 채용하여, 간편한 버튼 조작으로 제품 · 파렛트 · 컨테이너의 2단계의 적재 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구성됐다.

이 시스템을 사용해 해외 영업부는 고객의 주문에 대한 최적의 컨테이너 수량을 즉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출하 부서는 실제 주문에 대해 최적의 적재 계획을 자동으로 수립, 실제 적재 작업까지 연결하는 일관된 물류 업무를 구현해 수출 출하 업무의 유연성을 제고하게 됐다.

(주)로젠솔루션 이동명 사장은 “이번 시스템 공급은 유화 제품에 적용한 적재최적화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첫 사례로서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을 여러 가지 종류의 파렛트에 적입시 최적의 파렛트 조합을 생성해주는 이른 바, “멀티 컨테이너” 기능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는 향후 유사한 제품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주)로젠솔루션은 SCM(공급망관리시스템) 및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중 SCM상의 포장 및 적재 최적화 정보 시스템을 공급하는 SCM 전문IT업체로 국내 대형 제조업체의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유럽, 인도, 중국, 일본 등 해외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롯데제과(주)
‘설레임’ 월매출 1백억원 돌파
 파우치 포장형태, 차별성 부각

롯데제과(주)(대표이사 한수길)의 ‘설레임’이 병과시장 최초로 월 매출 1백억원을 달성했다.

롯데제과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 동안 ‘설레임’이 판매된 갯수는 약 2천2백만개로 이는 우리나라 국민 중 5~35세까지의 전체 남녀 지난 7월

업계동정

한 달간 한 개씩 먹은 셈이 된다. 이를 나란히 늘어 놓을 경우 서울과 부산까지의 경부고속도로를 4회 이상 왕복할 수 있는 양이다.

현재 전체 빙과시장의 약 2백여개의 제품 중에 성수기 월 매출이 50억원을 넘었던 제품은 월드콘, 스크류바, 더위사냥, 메로나, 마루시리즈 정도에 불과하다.

‘설레임’은 시판 첫 해인 2003년 만 10개월만에 2백7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2004년 3백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7월까지 누적 매출은 이미 2백65억원을 넘기고 있어 연말엔 5백억원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제과는 ‘설레임’은 빙과시장 최초로 파우치포장 형태의 빨아먹는 사베트 아이스크림으로 기존 튜브형 빙과류 대부분이 저연령층을 타킷으로 한 것과 달리 소비층을 청장년층까지 넓혔고 소비 시점도 여름철에서 사계절로 확대했다.

또 내용물에 있어 조직분해와 결빙이 쉬운 사베트로 하고, 맛도 유아에서 성인층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도록 요구르트딸기, 커피, 밀크셰이크로 세분화했다.

한국제지(주)
동탄 물류센터 자동화 창고 준공식
업계 최초 자동화창고 4기 보유

한국제지(주)(대표 전원중)는 지난 달 26일 동탄물류센터에서 영업대리점인 한지회 및 한정회 회원, 시공사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화창고 준공식을 가졌다.

전원중 사장은 “동탄 물류센터에 자동화물류창고가 준공됨으로써 한국제지는 업계 최초로 자동화창고 4기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며 “A-project 완수 이전에 동탄 자동화물류창고가 준공되어 이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착공된 동탄 자동화 물류창고 준공으로, 동탄물류센터는 총 창고면적 약 1천7백평에 10만6백톤의 저장능력을 갖게 됐으며 수송시간이 단축되면서 제품 수송차량 회전률이 높아져 향후 수송합리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주)대우인터내셔널
중국 제지법인 현지 상장 추진
생산설비 확대 모색

(주)대우인터내셔널(대표이사 이태용)이 중국 헤이룽장성 무단장시에 설립, 운영 중인 제지법인의 현지 상장을 추진한다.

한국 기업의 중국 법인이 현지 증시에 상장된 사례는 아직 없다.

대우인터내셔널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무단장대우제지를 유한공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했다”면서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께 중국 상하이나 홍콩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우제지는 지난 6월 주식회사 변경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비준을 얻었다.

이 관계자는 “무단장대우제지는 대우인터내셔널의 16개 중국 내 투자법인으로는 처음으로 주식회사로 전환한 것”이라면서 “상장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베이징올림픽(2008년)과 상하이엑스포(2010년)를 앞둔 중국에서 향후 4~5년 정도 고급제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 생산설비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대우제지는 1996년 당시 (주)대우가 60%, 중국의 행평제지가 40%의 지분으로 설립했으며 1만7천5백평 부지에 아트지 공장, 펄프 공장 등을 갖추고 있다.

2002년 말엔 경영능력 부족으로 유휴시설로 남아 있던 텐진 제지법인에 대한 위탁경영을 시작,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 생산량은 텐진 제지법인을 합쳐 16만3천톤이며 1억1천3백74만달러의 매출과 7백46만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대우제지는 이번 주식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본금을 2천1백68만달러에서 3천5백50만달러로 늘렸다.

식품업계
중국 수출 비상
식품류 라벨 표시요건 강화

중국이 오는 10월1일부터 식품류의 라벨 표시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을 내세움에 따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KOTRA 중국지역본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식품포장 라벨 표시통칙' 과 '특수음식식품포장 라벨

표시통칙' 을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 시행되는 규정엔 △ 라벨 표시와 제품성분 일치, 사용문자 및 숫자크기 최소 1.8mm 이상 △ 첨가 감미료 방부제 착색제의 구체적인 명칭 표기 △ 원료 및 조미료 성분 크기대로 표기(성분 비율이 2% 이하 제외) △ 특수식품(유아 및 당뇨 병 환자용 등)은 영양성분 표시 △ 생산일자 및 보존기한 수정 금지 △ 미신적인 요소, 음란물, 상식위반 내용, 타사비방 내용 기재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제조업체는 식품명칭 배합 목록 순함량 제조자명칭 및 주소 생산일자 포장일자 유효기간 제품표준번호 등 필요요건을 정확히 써야 한다”며 “만약 소비자가 제조업체의 허위 기재 사실을 신고할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다” 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DHL코리아
국제 보안전문협회 보안인증 획득
안전한 화물 운송 지속 투자

국제특송물류업체인 (주)DHL코리아(대표이사 배광우)의 강북 서비스센터가 국제 보안전문협회 TAPA로부터 TAPA 보안인증(Class A)을 획득했다.

TAPA 보안인증은 국제 보안전문협회 TAPA가 항공사 및 운송사를 대상으로 보안 심사를 실시해 수여하며, 화물운송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보안인증 시스템이다.

DHL코리아는 강북서비스센터가 A, B, C 세

업계동정

등급으로 나누어진 보안등급 가운데 최고 등급인 A 인증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TAPA는 심사 기준이 건물과 출입지점 보안, 출입통제, 창고 등 시설의 보안체계, CCTV 및 경보와 같은 보안시스템, 보안 업무 절차, 보안 필수사항 실시, 사전 보안정보 통지, 보안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8개 항목이며, 기준에 따른 총 1백여 개의 세부 항목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에만 인증을 수여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또, 회사측은 2005년 2월 새로 오픈한 DHL코리아의 강북 서비스센터는 서울 지역의 DHL 화물을 처리하는 중추 센터로서, 일평균 DHL 전체 서류물량의 45%, 그리고 화물의 12%에 달하는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 TAPA 보안인증을 통해 국제적인 화물운송 보안능력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DHL코리아의 배광우 사장은 “DHL코리아의 이번 TAPA 보안인증 획득은 보안시스템 강화, 운송 프로세스 개선, 화물관리기준 강화 등 안전한 화물운송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결과”며 “최고의 보안능력을 갖춘 물류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삼정피엔에이
포스코에 1천1백16억 공급계약
 알루미늄 선두기업으로 성장

삼정피엔에이(대표 정용희)가 철강제품 포장재 전문업체에서 철강 포장재 관련 설비 제작 및 설

치 정비 등 엔지니어링 사업과 제강용 알루미늄 탈산제 등 각종 알루미늄 산업용 원자재를 생산하는 선두 기업으로 변신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73년 포항 철강공단 내에 철강제품 포장재 전문기업으로 출발한 삼정피엔에이는 올해 포스코로부터 1천 1백66억원 규모의 제품 포장 및 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연 1천2백억원 규모의 국내 알루미늄 탈산제 시장에서도 40%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포장 및 관련 제품의 지속적인 수주 확대로 매출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은 전년도보다 20.9% 늘어난 2천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삼정피엔에이의 이같은 성장 원동력은 지난 30여년간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벤치마킹, 노사화합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회사는 제강용 탈산 알루미늄제품 생산과 관련해 지난 95년 업계 최초로 ISO 9002 인증을 획득했다. 노사화합도 남달라 2003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신노사문화 대상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로 4년 연속 임금 무교섭 타결을 이뤄내고 있다.

올 들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한 '제17회 보람의 일터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중소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윤리규범'을 제정, 사내 '정풍운동'을 전개하는 등 신뢰를 주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용희 대표는 “노와 사, 고객 모두가 균형을 이뤄야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 순항 할 수 있다”며 “이는 곧 회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앞으로도 믿음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컴퓨터아트시스템(주)
다이렉트 조각시스템 기술세미나
 최신 제판기술 설명

제판설비 판매업체인 컴퓨터아트시스템(주)(대표이사 송광섭)이 지난달 24일 일산 KINTEX 세미나실에서 다이렉트 조각시스템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Dr ANDDREAS BROCKELT의 다이렉트 레이저 설명과 이 설비에 대한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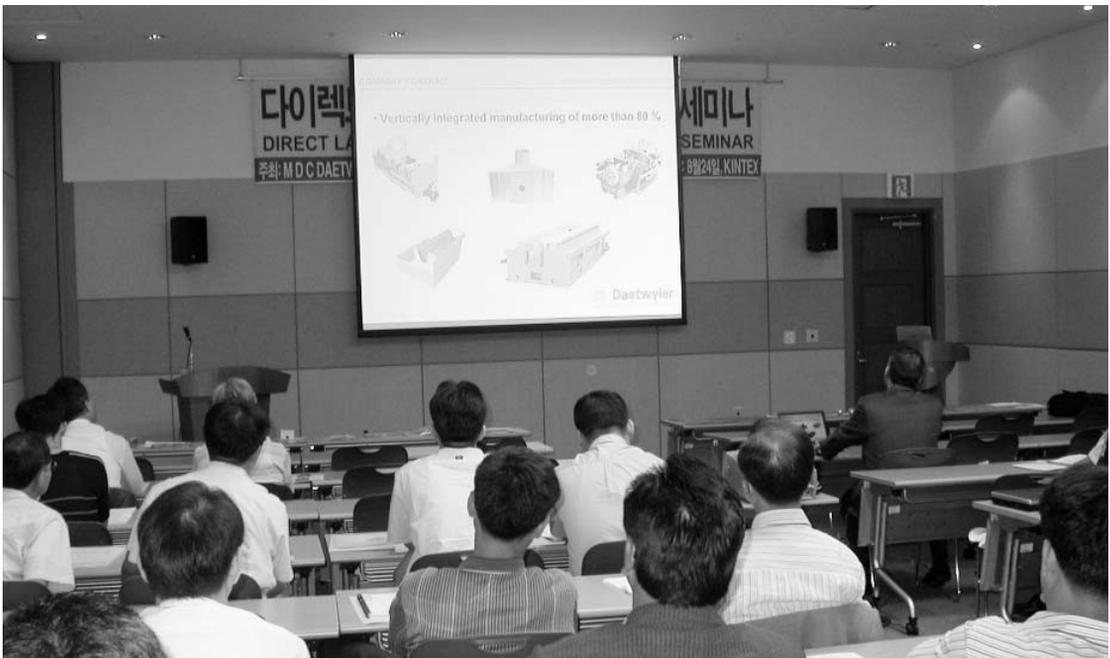
컴퓨터아트시스템은 우리나라 그라비아 인쇄업계 중 제판업체 관련자 30여명을 초청, 이 분야



▲ 김중인 공성기업 전무이사 감사패 받아

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MDC 제작부장의 그라비아 실린더 제작기술에 대한 실무를 설명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우리 협회 회원사인 공성기업 김중인 전무이사가 감사패를 받았다.



▲ 컴퓨터아트시스템(주) 다이렉트 조각시스템 기술세미나

삼광유리
올초부터 진로에 소주병 납품
전체 매출 진로 소주병 비율 2% 미만

삼광유리공업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로에 소주병을 납품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유율은 10~15% 정도이다.

회사관계자는 “진로 소주병은 지난해 경쟁사인 금비가 대부분을 차지해 점유율이 10%에도 못미쳤다”며 “올해 초부터 점차적으로 납품 물량이 늘어나 10~15%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측은 전체매출액에서 진로 소주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2% 미만이라고 밝혔다.

삼광유리는 하이트맥주와 롯데칠성음료(주) 등에 병과 캔을 납품하는 회사다.

신무림제지
‘좋은 종이’ 창간 100호 발행
고객만족 극대화 노력

인쇄용지 전문기업 신무림제지(대표 김인중)에서 발행하는 제지정보지 ‘좋은 종이’가 지령 100호 특집호를 발간했다.

국내 제지산업 발전의 밑알이 되고자 창간한 국내 최초의 제지정보지 ‘좋은 종이’는 지난 96년 9월 첫 선을 보였으며, 발간 당시 1천부에서 시작했으나 현재 매월 1만부 발행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최고의 제지정보지로 발돋움했다.

‘좋은 종이’는 펄프재고가격동향, 인쇄용지생산판매현황 등 기본적인 제지정보를 비롯해 지류유통뉴스, 인쇄출판뉴스, 잉크이야기 등 제지관련 정보까지 종이의 하나에서 열까지 생생한 소식을 담아왔고, 이에 제지사, 증권사, 지류유통사, 인쇄사, 출판사, 디자인사, 학교 등 관련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제지산업 분석을 위한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필수 구독서로 큰 인기를 끌면서 제지업종을 새로 맡은 애널리스트들이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구독 요청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있었다.

김인중 사장은 “‘좋은 종이’는 제지정보를 통해 다양한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좋은 종이’를 통한 지속적인 제지정보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좋은종이’ 구독은 무료이며 제지정보를 얻고자 하는 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무림제지 홈페이지(www.moorim.co.kr)를 통해서도 ‘좋은 종이’를 만날 수 있다.

신무림제지
맛있어지는 길거리 마케팅 실시
‘네오아트 SE’ 출시 기념

신무림제지(대표 김인중)가 국내 대표적인 종이거리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맛있는 간식을 전달했다.

신제품 ‘네오아트 SE’ 출시 기념으로 진행되는 금번 Summer Event는 지난 달 17일 을지로와

충무로 일대에서 열렸다.

을지로, 충무로 지역은 종이 물량의 60%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종이 거리이다.

마케팅팀 노희동 팀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종이 인쇄에 매진하는 인쇄사 고객들에게 기분 좋은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인쇄작업성이 빨라 착착 인쇄되는 네오아트 SE 사용으로 인쇄도 빨라져 퇴근 시간이 앞당겨지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무림제지는 을지로, 충무로 인쇄인들을 대상으로 영화 시사회를 개최하는 한편 거리 청소와 같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종이 거리에서의 길거리 마케팅 활동에 주력해 왔다.

RFID업계
공공 RFID 본사업 '시동'
2010년까지 3천4백억원 투입

전자태그(RFID) 시장 조기 확산을 위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돼 온 '공공 분야 RFID 선도 사업'이 내년에는 본사업으로 본격 전환된다. 또 본사업 1차연도에만 국비를 포함해 4백억여원이 투자되고, 오는 2010년까지 3천4백억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한국HP가 정보통신부 및 한국전산원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RFID 공공분야 수요확산 마스터플



▲ 신무림제지 맛있어지는 길거리 마케팅 실시

업계동정

랜 수립' 컨설팅에 따르면 내년엔 시장 확산 효과가 큰 10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RFID 적용 본사업을 시작하는게 타당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RFID 적용 타당성 및 시장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10개 정부부처의 본사업 과제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탄약관리를 비롯해 △ 국방부(신무기체계자산관리시스템 자산관리) △ 국방부(공군 F15K 전투기 부품 적용) △ 환경부(폐기물관리) △ 조달청(물품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 인천공항 및 한국공항공사(항공화물 및 개인소화물 관리) △ 통일부(개성공단 통행 및 전략물자 관리시스템 구축) △ 강원도(대관령 한우 RFID시스템 구축) △ 해양수산부(u포트) 그리고 시범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약품 유통관리) 등의 업무 영역이 선정됐다. 이 중 국방부와 조달청의 RFID 적용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 및 구매력을 고려할 때 업무 효율화는 물론이고 국내 민간 RFID 시장 확산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됐다.

한국HP측은 보고서에서 일단 사업 1차연도 때는 기관별 예산 지원에 차등을 두되 총 국비 지원을 포함한 4백억여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했으며, 분야별 중장기 로드맵을 고려할 때 오는 2010년까지 총 정부 및 공공 분야에서만 3천4백억여원의 투자를 예상했다.

한국전산원은 이번 컨설팅 결과를 조만간 정통부에 보고할 계획이며, 정통부는 이 안을 토대로 공공 분야 RFID 수요 확산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 최종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내년도 RFID 본사업을 위한 1백50억원의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한 상태다.

물류업계 한중물류센터 건립 움직임 활발 물류체계 개선 및 부가가치 효과 기대

인천에 '한·중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3일 5층 상형실에서 인천시, 삼영물류, 영진공사, 한솔CSN, 현대택배, CJ-GLS, 힐 로지스틱스(Hills Logistics), 한아엔지니어링, 인천대학교, 재능대학교,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 착수회의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중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전담팀 구성 및 타당성 분석, 중국 칭다오 물류투자대표단 초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관 합동 추진단은 우선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이달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한·중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 시행자로 삼영물류와 영진공사 등 인천지역 물류업체를 우선 확정된 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국내 대형 물류회사 1~2개 업체를 참여시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지역 물류업체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한·중 물류센터'는 인천 남항 매립지 내 약 5만평의 터에 들어설 전망이다.

민·관 합동 추진단은 인천 남항 매립지의 물류단지 조성공사가 올 연말 준공 예정에 있는 점을 감안, 우선 활용 가능한 터에 대해 운영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지의 조기 활용을 통해 인천항의 물류 비용 절감 및 항만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관 합동 추진단은 인천 남항 매립지 내에 물류센터를 만들어 컨테이너 화물 처리시설로 활용하고 건립시설(장비 제외)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설립된 합작법인이 20년간 소유, 운영한 뒤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는 방침이다.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입 화물과 한적 화물을 처리할 한·중 물류센터는 새로운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인천항의 컨테이너 부두 경쟁력을 높여 물류체계 개선 효과는 물론 국가 및 지역경제에 엄청난 부가가치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DHL
모든 화물에 RFID 장착
2015년까지 시스템 구축 계획

다국적 특송업체인 DHL이 최근 2015년까지 모든 화물에 전자 태그(RFID)를 적용하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3PL업체로는 DHL이 처음이다.

최근 JOC에 따르면, 이 회사의 미국 지부 RFID 관리 책임자인 밥 버그는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 시스템을 완결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DHL은 1998년부터 RFID에 대한 연구를 해왔으며, 독일의 유통업체인 Metro AG사와 18개월 동안 RFID의 시범 운영을 마친 상태이다.

한편, 밥 버그는 바코드를 대신해 RFID 활용할 경우 노동 절감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는데, 물류 전문가들은 DHL의 계획이 RFID의 기술적 완성도를 앞당기고, 화주에게 RFID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식품업계
미투 제품 급증
경쟁사 제품 카피 사용 빈번

최근 인기 상품의 상표와 브랜드를 그대로 베낀 ‘미투(me-too)’ 제품이 급증하면서 식품업계가 경쟁사간 소송 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업계 선두라고 할 수 있는 유명 대기업들조차도 경쟁사 제품을 그대로 베껴 사용해 눈치를 받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자사의 ‘크라운 콘칩’을 모방한 오리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운은 이미 지난달 초에 오리온에 ‘의장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관한 경고장’을 보냈다. 크라운 관계자는 “오리온 측에 경고장을 보낸 후 한 달이 지났으나 뚜렷한 답변이 없다”면서 “조만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콘칩’은 크라운의 대표 스낵으로 출시 이후부터 콘칩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오리온이 최근 크라운 콘칩과 제품명은 물론 디자인·제품형태까지 거의 유사해 소비자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콘칩을 선보이고 대대적인 할인행사에 나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업계동정

것이 크라운 측 주장이다.

롯데제과 역시 최근 법원에 오리온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5월 오리온이 출시한 쿠키 '마로니에'의 포장디자인이 자사의 '마가렛트' 제품과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8일 "마가렛트 제품 표지가 상품 표지성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롯데의 추가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롯데제과는 자사 히트상품인 '자일리톨껌'의 포장지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오리온 자일리톨껌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으며 이때는 재판부가 롯데제과의 손을 들어줬다.

물론 오리온만이 베끼기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리온은 롯데제과가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포칸'에 대해 오리온 '포카칩'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해태 제과 역시 자사의 주력 히트제품인 '홈런볼'과 유사한 '마이볼'을 출시한 롯데제과에 대해 최근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제품 시장에서도 베끼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빙그레는 지난 달 20일 해태유업을 상대로 '생생과즙 바나나우유'의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심지어 상대방의 주력상품에 대한 광고까지 그대로 베끼는 사례도 있다. 남양유업은 최근 자사 제품 바나나우유를 광고하면서 빙그레의 바나나맛우유 광고 패러디를 그대로 모방했다. 모델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그대로라는 것이 빙그레측 설명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체간 분쟁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제과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투상품은 더이상 용납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식품업계 쿠키포장소송 오리온 승리 상품 표지성 획득 보기 어려워

롯데제과와 오리온이 쿠키제품 포장 디자인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오리온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지난 달 8일 오리온에서 출시한 '마로니에' 제품 포장지가 자사의 '마가렛트' 포장지와 비슷해 제품 혼동을 줄 수 있다며 롯데제과가 오리온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마가렛트 제품 표지가 상품 표지성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품 포장이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정광고에 의해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만큼 구별되는 경우에만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신청인의 주장만으로는 마가렛트 제품 표지가 상품 표지성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마로니에 포장 사용이 마가렛트 상품의 모방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상표 구성과 색감 등에서 일부 유사한 점만 인정될 뿐 상표와 상호가 다르고 제품 포장 구성 및 배경 등을 볼 때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제품

(주)오토닉스

85각 기어드형 5상 스테핑 모터 AK-G시리즈 출시

5상 스테핑 모터의 업계 최대 토크 실현

산업 자동화 전문기업 (주)오토닉스(대표이사 박환기)가 Planetary Gear Head를 적용한 국내 최초의 85각 Geared type 5상 스테핑 모터를 출시했다. 고속/고토크/고정도를 실현한 AK-G 시리즈는 5상 스테핑 모터에 최고 각을 적용한 제품으로 85각 스테핑 모터에 88각 Planetary Gear-Head의 결합을 통해 부하 변동에 대한 높은 강성을 자랑하며, 200Kgf·cm의 강력한 토크로 작업 현장에서 생산성 극대화와 경제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Gear System 적용에 따른 부하변동(외란)에 대한 높은 강성을 지니며 가격도 저렴하다. 이 제품은 기동, 정지 시 Damping 특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저 진동을 요구하는 설비, 부하의 변동폭이 큰 설비에 적용하면 탁월하다.



롯데제과(주)

5가지 야채스낵 '베지칩' 시판

포장컬러 녹색 및 빨강색 물결무늬 띠 적용

롯데제과(주)(대표이사 한수길)가 선보인 '베지칩'은 고소한 옥수수 반죽에 양파, 당근, 파슬리, 마늘, 토마토 등을 넣어(야채 함량 총 18.2%) 향긋하고 상큼한 야채맛이 진하게 느껴지는 스낵이다. 또 매콤한 양념을 뿌리고 오븐에 살짝 구워 매콤한 맛과 고소한 맛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노르스름하게 구워진 삼각형 스낵 표면에 녹색, 적색 등 야채 칩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 시각적으로도 구미를 당기게 한다. 야채와 매운맛을 강조하기 위해 포장의 컬러를 녹색으로 설계하고, 빨강색 물결무늬 띠로 포인트를 줬다.



(주)오뚜기

시찌미출시

향신료 선도기업 이미지 확고 계획

(주)오뚜기(대표이사 강신국)가 7가지 향신료를 혼합한 '시찌미(七味)'를 출시했다. 오뚜기 '시찌미(七味)'는 고추의 매운맛에 진피(건조시킨 밀감의 껍질), 검은깨, 산초, 생강분, 마늘분 등을 조화시켜 개운하고 시원한 맛이 나는 독특한 향신료로 우동, 칼국수, 각종 국, 짜장면, 무침·볶음 요리에 맛과 향을 더하고자 할 때 사용하면 좋다.

한편, 시찌미(七味)는 7가지 맛(달고, 맵고, 시고, 쓰고, 짜고, 짭고, 싱거운 맛)을 내는 7가지 향신료(고추가루, 구운 고추가루, 검은깨, 산초, 겨자, 대마씨, 진피)를 혼합하여 7가지의 맛과 향을 내는 일본의 향신료를 말한다.

후추로 대표되는 국내향신료 제품의 시장규모는 약 2백50억원 정도이며 오뚜기에서 7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시찌미의 출시로 국내 향신료 선도기업의 이미지를 보다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찬들

매콤달콤 떡볶이 양념장 출시

파우치포장, 날개 포장으로 조리 간편

장류기업 해찬들(대표 오정근)이 토마토케첩과 배푸레, 그리고 로즈마리 허브가 들어 있는 '매콤달콤 떡볶이 양념장'을 출시 했다.

이 양념장은 사과, 쇠고기, 간장, 양파, 마늘, 참깨 등 갖은 양념까지도 들어 있어 추가로 조리할 필요 없이 물만 부어 간편하게 떡볶이 요리를 완성할 수 있다. 2~3인분용의 날개로 포장되어 있어 조리 시 파우치 포장만을 뜯어 붓기만 하면 된다. '매콤달콤 떡볶이 양념장'은 그 빛깔이 곱고 맛있게 매운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몸에 좋은 로즈마리, 허브 분말도 들어 있어 아이들 간식으로도 안성 맞춤. 또한, 주부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 뒷면에 '조리법' 및 '물 계량지선' 등을 표기해 뒤 누구나 맛있는 떡볶이 요리를 완성할 수 있게 했다.



폴무원샘물

프리미엄 먹는 샘물 '폴무원 워터라인' 출시
S라인 형상화한 디자인 및 산호빛깔 패키지 적용

폴무원샘물(대표 서석원)은 프리미엄 먹는 샘물 '폴무원 워터라인(Waterline)'을 출시했다. 새롭게 출시된 '폴무원 워터라인'은 아름다운 여성의 바디라인인 'S라인'(S-line)을 형상화한 혁신적 디자인과 매력적인 열은 산호빛깔(light coral)의 패키지로 프랑스와 한국 디자이너가 공동으로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폴무원 워터라인'의 S라인 용기는 시각적으로 뛰어날 뿐 아니라 손으로 쥐기에 편하며, 가볍고 부드러워 누구나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다.



동원F&B

'양반삼계죽·해물죽 출시
닭고기 함량 29%

동원F&B(대표 박인구)가 '양반삼계죽'과 '양반해물죽'을 출시했다. '양반삼계죽'은 건강을 중시하는 30~40대 남성을 주 타겟으로 대표적 인삼 원산지인 금산 인삼을 사용하여 영양이 풍부하며, 닭고기 함량이 29%로 높아 푸짐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양반해물죽'은 새우·조개 등의 해산물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폴무원

'찬마루 새송이 메추리알 장조림 출시
신선하고 품질좋은 원료 사용

폴무원(대표 이규석)은 국내산 메추리알과 새송이 버섯으로 만든 맛의 '찬마루 새송이 메추리알 장조림'을 출시했다.

'찬마루 새송이 메추리알 장조림'은 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인 새로운 타입의 장조림으로, 난황중

업계동정

심 제조 공법을 적용해 메추리알이 부서지거나 노른자에 의한 국물 혼탁이 없어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소스가 자극적이지 않아 담백한 맛을 내며 돈육대신 사용한 새송이 버섯의 향과 파리고추의 개운한 맛이 입맛을 돋워 준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회사측은 '찬마루 새송이 메추리알 장조림'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모든 원료는 선정과정부터 가장 신선하고 품질 좋은 원료만을 사용하고 인공화학조미료(MSG), 합성 보존료, 합성 착색료를 일체 첨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난가공제품 시장은 1백억 정도로 추정되며 20%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난가공제품 시장은 풀무원이 60%, 그 외 점유율을 CJ와 중소 식품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상

‘청정원 참빛고운 포도씨유’ 출시

코끼리 모양 양 조절 캡사용

대상은 최근 청정원 참빛고운 포도씨유를 출시했다.

청정원 참빛고운 포도씨유는 신선하고 잘 익은 지중해산 포도만 엄선해 만들어 맛과 향이 담백하고 부드럽다.

발연점이 일반 식용유보다 높아 튀김요리에 적합해 달걀 후라이, 두부부침, 튀김은 물론 토스트, 조림, 샐러드 드레싱의 맛을 살려 준다.

특히 콜레스테롤이 없고 항산화제인 비타민E와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풍부해 육류 섭취가 많은 성인들의 건강 식단에 적합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한 후레쉬 에어로 깨끗이 씻은 100% 포도씨만 사용해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코끼리 모양 양 조절 캡을 사용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해찬들

‘야채와 과일로 두번 달인 맛간장 소스’ 출시

다양한 요리 소스로 활용 가능

장류업체인 해찬들(대표 오정근)이 최근 100% 양조간장에 사과, 배, 파인애플, 양파, 파, 마늘, 생강, 올리고당 등을 넣어 홈 메이드 방식으로 두 번 달여 만든 ‘야채와 과일로 두번 달인 맛간장 소스’를 출시했다.

과일과 야채를 넣어 맛이 풍부하면서 색이 연하고 9%의 낮은 염도로 짜지 않아 조림 소스용으로 알맞은 프리미엄 간장인 ‘야채와 과일로 두번 달인 맛간장 소스’는 기존 간장의 진한 색이 요리의 색을 잘 살려주지 못하고 추가로 양념을 해야 한다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출시하게 됐다.

이 제품은 과일 퓨레와 야채가 들어가 그 색이 연하고 맛이 순하며 무엇보다 별도로 양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특징이다. 또한 9%의 낮은 염도로 짜지 않기 때문에 각종 조림 요리나 다양한 요리의 소스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간장 시장은 혼합간장에 비해 양조간장 시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찬들은 양조간장에서 더 나아가 전통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퓨전 음식에도 쓰일 수 있는 소스로서 간장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간장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효자원

‘석류애’ 출시

알로에 및 글루칸 -30%, 프락토올리고 분말 함유

효자원(대표 정용택)이 신제품 ‘석류애(愛)’를 출시, 여성 소비자들의 입맛 공략에 나선다.

‘석류애(愛)’는 양귀비와 클레오파트라도 즐겨 먹었다는 ‘생명의 과일’ 석류가 곱믹스를 이루고 그 안에 알로에베라 절편이 박힌 제품으로 맛뿐만 아니라 기능성을 대폭 보강해 여름 빙과 시장에 웰빙바람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업계동정

효자원은 최근 선보인 '왕토마토'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제품의 고급화와 차별화 전략에 따라 식품중앙연구소가 오랜 연구개발 끝에 야심차게 내놓은 '석류애(愛)'가 매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석류애(愛)'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젠 성분이 함유돼 각종 부인병과 피부 미용에 좋은 석류를 비롯, 피부 보습, 상처 치유, 위장병, 변비 등에 효과가 있는 알로에와 면역력 증강 성분인 글루칸-30, 정장 및 혈당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락토올리고 분말 등이 들어 있어 무더운 여름 건강과 청량감을 동시에 만족시킬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선광자동밸브

2WAY (3WAY) MOTOR CONTROL VALVE 출시

열매체용, 물, 에어, 스팀용

선광자동밸브(대표 콕병규)는 물, 에어, 스팀, HOT OIL 등을 유량제어, 온도제어시 정밀제어 할 수 있는 VALVE 및 ACTUATOR로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제품이다.

특히 차압에 관계없이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는 PISTON-CYLINDER 내장형이 개발되고 열매용 2백~3백도를 비례제어하는 제품은 케어시스템분야의 경제적인 이윤성과 생산성 향상에 주목하고 있다.

